



1

## 대한민국 '제2의 예술도시' 대구로 떠나는 11월 예술여행

대구가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성지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올 11월 22일 개막하는 대구아트페어를 미리 살펴보자. 대한민국 제2의 예술 도시로 성장한 대구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한다.

글 이소영(프리랜서 기자)

2



3



1 대구미술관 외관  
2 우손갤러리 외관  
3 대구 출신 미술가 박현기의 비디오 설치 작품(1979년). 이번 대구아트투어에서 특별전이 열린다.

### 2018년 대구아트페어, 5천여 작품 나온다

우리나라 제일의 예술 문화 도시는 단연 서울일 것이다. 그렇다면 제2의 미술 문화 도시는 부산일까?

미술 관계자들은 서울 다음으로 대구에 미술 애호가도 많다고 입을 모은다. 김구림, 서세옥, 이강소, 최병소, 김수자, 남춘모 등 대구 출신 유명 미술가들도 이러한 주장의 증거가 될 것 같다. 올 11월에 많은 볼거리가 있는 대구로 문화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나라 3대 아트페어로는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아트부산 그리고 대구아트페어가 꼽힌다. KIAF는 우리나라 대표 아트 페어로 안정적인 것이 매력이며, 아트부산은 바다를 볼 수 있는 부산으로 나들이를 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올해 이미 두 개의 페어는 막을 내렸으니 11월 22~25일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아트페어를 주목하자.

대구아트페어는 서울과 부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에서 열리기 때문에 화려함은 덜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는 역사 깊은 미술 도시로 많은 컬렉터와 미술 전공자들이 있어 진중하다. 아트페어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참여가 결정되기에 대구 갤러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화랑의 작품 수준이 높다. 판매액은 올해부터는 비공개될 예정인데, 작년에는 현장에서 48억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정도로 활력이 넘친다.

올해는 7개국 111개 화랑이 참여한다. 국내외 700여 작가의 5천여 작품이 전시될 예정. 대구아트페어를 주관하는 대구화랑협회 안혜령 회장(리안갤러리 대표)은 첫 방문일지라도 아트페어에 부담 갖지 말고 분위기를 즐기라고 조언한다.

"아트페어는 특별한 사람을 위한 축제가 아닙니다. 미술 문외한이라도 페어의 활기를 만끽하며 나의 예산에 맞는 그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그림을 젊은 작가를 후원한다는 마음으로 살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한 투자 개념으로 유명 작가의 그림을 살펴볼 수도 있다. 인테리어를 위해 우리 집에 어울리는 미술 작품이 어떤 것인지 행복한 상상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작품 구매에 관심이 있는 미술 초보자라면 믿을 만한 갤러리에 조언을 구하고 의논해야 한다. 컬렉터로서 좋은 작품을 알아보는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구 컬렉터들은 해외 아트페어 참여 경험도 많고 스스로 공부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작품에 관심을 가지는지 관찰하는 것도 흥미로운 것 같다.

대구아트페어는 매년 대구에서 활동한 거장의 특별전을 기획하는 것도 특징이다. 특별전은 지역 미술을 재조명하는 의미 있는 전시 이벤트로서의 의미가 있다.

올해 특별 전시는 <박현기, 대구에서>다. 박현기는 우리나라 비디오 아트 선구자이자 과거 전위미술운동의 중심이었던 '대구현대미술제'의 주역이다. 전시는 박현기의 작업 활동을 회고하며 대표 영상·설치 및 퍼포먼스 작업을 선보인다. 2017년 대구아트페어 특별전 <대구의 천재 화가 이인성> 전시에 이어 대구 미술의 역사를 살펴보는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 같다. (www.daeguartfair.com)



1 대구 출신 미술가 김구림의 유화 작품 2 최병소 작가는 신문에 연필과 볼펜으로 수행하듯이 칠해 나간다. 3 이강소 작가는 과거 퍼포먼스로 시작해 조각과 회화 작품으로 진화하고 있다. 4 리안갤러리 대구 전경



2

### 대구가 배출한 스타 작가는 누구?

대구가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시발점이 된 배경은 뭘까?

여전히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구림 작가의 작품부터 이야기해보자. 김구림 작가는 어쩌면 지나치게 시대를 앞서나간 미술인이었는지도 모른다. 최병소 작가는 젊은 시절 김구림 작가의 전시회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회고한 바 있다.

"1973년 대백화관에서 김구림 작가가 전시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작품이 보이지 않아서 물어보니 바닥을 가리키더라고요. 바닥에는 '김구림'이라는 작은 이름표가 있었는데, 김구림 작가가 조금 전에 걸레로 바닥을 닦은 퍼포먼스의 흔적이라는 설명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시다."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작품이라는 것에 쇼크를 받은 최병소 작가는 1974년 박현기, 이강소, 황현욱 등과 손을 잡고 <한국실험작가전> <대구현대미술제>의 주역으로 활동했다. 대구현대미술제는 구상과 추상의 갈등 속에서 추상미술이 미쳐 뿌리가 내리기 전에 이벤트, 전위, 비디오 미술 전반을 수용하며 한국 화단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당시만 해도 먹고 살기 바빠서 갤러리와 미술관을 한번도 가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였는데, 대구에서는 벌써 국제적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이다. 최병소 작가 역시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그의 작업은 주로 신문을 연필과 볼펜으로 지우는 것으로 창조된다. 1975년 거리에서 구매한 천수다라니경을 들

면서 무심히 신문을 지우기 시작했던 그의 행위는 젊은 시절 다시 멈췄다가 2018년 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에게 신문을 지운다는 것은 나를 지우는 일이다. 몸으로 이루어내는 수행이자 정화다.

<투명풍선과 누드> 퍼포먼스로 알려진 정강자는 한국 현대미술 초기 해프닝 및 퍼포먼스를 이끌어 1960~1970년대 한국의 문화계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 여성 작가다. 전위적 행위미술 그룹 '제4집단'의 멤버로 활동하며 미술계와 보수적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3



4



5, 6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난 남춘모 작가는 구불구불한 논두렁 밭두렁에서 영감을 받은 입체 회화를 만든다. 7 리안갤러리 대구는 우리나라 작가의 자력을 알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남춘모 작가는 내년엔 독일 루드비히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갖기에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구불구불한 밭고랑을 검은 비닐로 덮어 놓은 풍경에서 영감을 받은 입체 회화를 선보이고 있다. 광목을 굳혀 작은 조형물을 만들고, 이를 캔버스 위에 붙이는 방식으로 만든다. 24시간 빛에 따라 시시각각 색채가 변하는 작품의 변화가 매력적이다. 아트페어에서 대구 출신 미술가를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5

### 대구 갤러리들 11월 전시 '풍성'

대구에 가면 꼭 들러야 할 명소는 리안갤러리, 우순갤러리다. 새로 문을 연 사진전문 갤러리 아트스페이스 루모스와 대구미술관, 동원화랑, 분도갤러리, 피앤씨 갤러리, 보데갤러리, 대구보건대학교 인당미술관도 놓치지 마시라.

리안갤러리는 1980년대 대구에서 서울 뺀치는 신선한 전시들을 선보였던 시공갤러리가 전신이다. 시공갤러리 이태 대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의미 깊은 갤러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쉬워 컬렉터였던 안혜령 대표가 갤러리스트에 도전하게 된 것이다.

컬렉터 출신의 안 대표가 갤러리를 이끌며 동등한 입장에서 미술 애호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기에 지금 대구에 수준 높은 컬렉터가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6

다. 리안갤러리는 2013년 서울에도 갤러리를 오픈했고, 올해 아트비젤 홍콩의 본 전시인 <갤러리즈 (Galleries)> 섹션에 참가하며 명실공히 우리나라 베스트 갤러리 대열에 이름을 올렸다.

초기에는 앤디 워홀, 데미안 허스트, 알렉스 카츠, 프랭크 스텔라, 데이비드 샬리, 키키 스미스, A.R. 펑크 등 해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며 갤러리 알리기에 나섰다, 요즘은 국내외에 우리 작가를 소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리안갤러리 대구에서는 11월 15일부터 12월 29일까지 구상 회화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이창남 작가의 개인전 <On the Wall>을 선보인다. 이창남 작가는 자신의 이틀리에서 바라본 주변 풍경이나 일상 사물들을 주제로 은화하고 부드러운 색감과 미묘한 빛의 변화로 캔버스를 가득 채운 회화를 완성한다. 이창남의 회화는 친숙한 듯 보이지만 묘한 낯섦이 공존한다. 빛과 색채의 세계에서 정서적 교감을 하도록 이끌 것이다. (www.leeahngallery.com)



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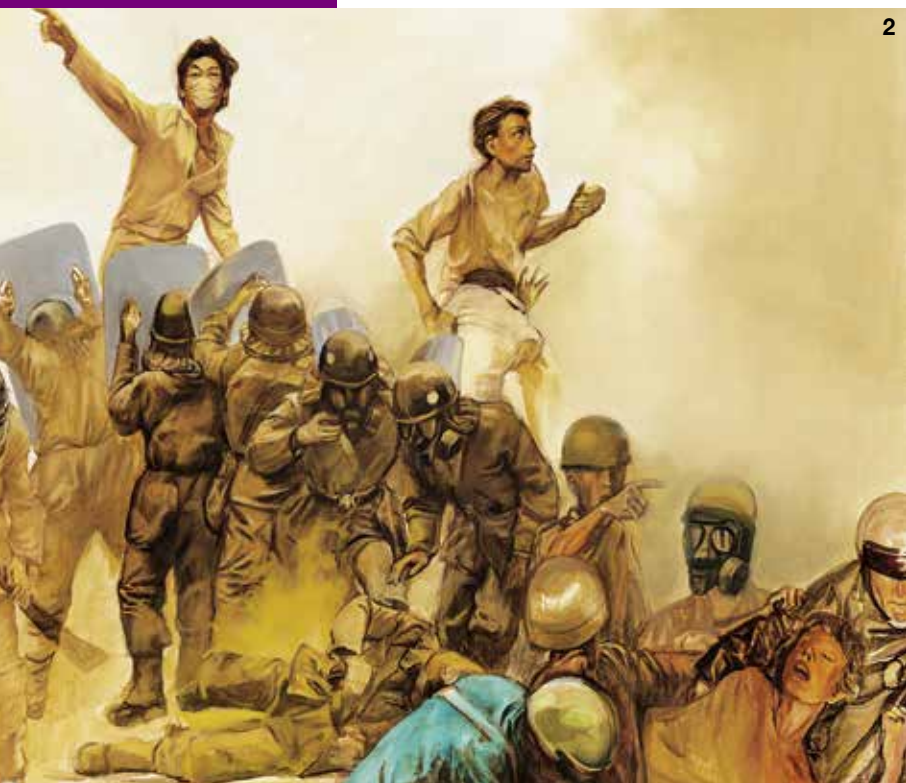
우손갤러리에서는 11월 3일부터 미술가 토니 크랙(Tony Cragg) 개인전이 열린다. 토니 크랙이 직접 방한해 작품을 설명할 예정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토니 크랙은 영국 출신으로 독일 부퍼탈에서 활동하는 작가로, 2008년에는 부퍼탈에 조각 공원을 개관하기도 했다. 2002년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이 토니 크랙의 조각 '분비물'을 컬렉션했는데, 3억 3천만 원으로 당시 구입작 중 최고가였다든 재미있는 뒷이야기도 있다. 그는 초기에 플라스틱 쓰레기로 구상 형태의 작품을 만들었으며, 이후 브론즈, 강철, 유리, 목재 등 여러 재료를 이용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탐구한다. 최근에는 <초기 형태들> <이성적 존재> 시리즈에 집중하고 있다. <이성적 존재> 연작은 다양한 재료로 된 작품을 한 바퀴 돌아 감상하다 보면 얼굴 옆 모습이 나타나는 긴 원주형 작품이다. 조각의 무게는 무려 800kg에 달하지만, 무겁게 보인다가보다 감성적이다. 2012년 우손갤러리 개관전에 이은 두 번째 개인전이기에 더욱 뜻 깊다. 우손갤러리 역시 홍콩아트바젤의 입문 <인사이트 (Insight)> 섹션에 올해 처음 선정되며 차세대 갤러리로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www.woosongallery.com)

대구미술관에서는 3개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 젊은 작가를 지원하는 <Y 아티스트 프로젝트>로 염지혜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제18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인 <최민화: 천 개의

우회> 전시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근대미술에 큰 업적을 남기고 젊은 나이에 요절한 이인성을 기리기 위한 이인성미술상은 최민화 작가의 시대 정신과 탐구 정신을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 최민화는 지난 40여년 간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등 우리 현대사를 그려온 작가다.

"분홍은 붉은 화염병, 하얀 최루탄이 섞인 시위 현장에서 창안한 색입니다. 대표작 <분홍> 시리즈를 통해 청춘의 상실과 희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열리는 <프레임 이후의 프레임: 한국현대사진운동 1988~1999> 전시는 1990년대 한국 사진 부흥기를 정리하는 전시다. (http://artmuseum.daegu.go.kr)

지난 9월 새롭게 오픈한 아트스페이스 루모스(Art Space LUMOS)는 사진 전시 공간이다. 2년에 한 번 사진비엔날레가 열리며 사진 예술 중심지로 각인되고 있는 대구이기에 새 공간 오픈이 반갑다. 개관전 <로



2

1 2017년 대구아트페어에 참가한 우손갤러리 부스  
2 대구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최민화 작가의 작품 '기투'(1996년)



3

3 사진을 전문으로 소개하는 아트스페이스 루모스 전시 전경. 개관전으로 로버트 프랭크&슈타이들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  
4 동원화랑에서 전시하는 김지아나 작가의 흠으로 만든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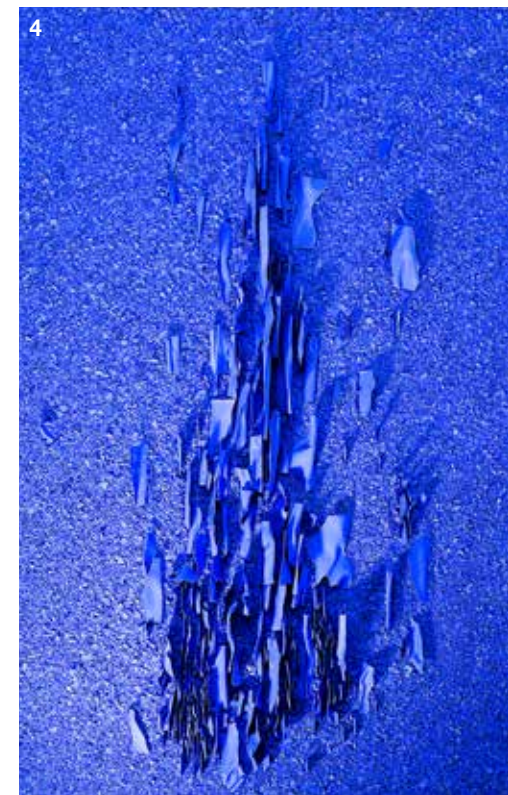
버트 프랭크(Robert Frank): Books and Films, 1947~2018>는 현대사진의 아버지라 불리는 로버트 프랭크와 출판계의 거장 게르하르트 슈타이들이 함께 만든 전시다.

스위스 출신 로버트 프랭크는 거리 사진과 다큐멘터리 사진의 창시자로서 현대 사진가에게 영향을 끼친 작가지만 오리지널 젤라틴 실버 프린트가 너무 섬세하기 때문에 대형 전시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출판 거장 슈타이틀과 손을 잡고 뉴스 인쇄용지에 프린트된 사진과 책, 그의 단편 영화들을 회고전 형식으로 보여준다. 그의 대표작 <미국인(The Americans)> 오리지널 프린트도 4점과 슈타이틀이 만들었던 27권의 사진집이 하이라이트다. 11월 30일까지.

대구사진비엔날레 기간에 맞추어 구본창 작가의 회고전을 열었던 갤러리 분도에서는 12월에 이지영 작가의 전시를 열 예정이다. 대구아트페어에서는 금중기, 김병주, 박수연, 임창민, 장재철, 정인희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www.bundoart.com)

동원화랑에서는 11월 6일부터 30일까지 김지아나 작가의 개인전이 열린다. 김 작가는 빛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흠을 선택했다. 흠 작업에 LED, 센서와 같은 첨단 기술을 결합해 제작한 평면 회화가 흥미롭다. 흠을 붓에 묻혀 석고판 위에 그린 후, 초벌, 재벌을 거쳐, 깨고, 붙이고, 붓으로 그리는데 과정의 반복으로 완성된다. 그 위에 LED 불빛을 비추어 나타나는 빛의 효과는 관람객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 (www.idongwon.co.kr)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처럼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가지는 행위가 아닌가! 대구에 문화 명소가 많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있어 아쉽다. 11월에 대구에 갈 일이 있다면 들려보면 좋을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어느 하루 시간을 내어 색다른 여행에 도전해보는 것일 거다. 2020년에는 간송미술관이 대구에 전시관을 연다고 하니 앞으로가 더욱 주목된다. 대구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쓸쓸한 가을을 따뜻이 감쌀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 ❶



4